

〈특집 :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과 이운 그리고 복장유물〉

조선후기 평강 보월사의 증창과 화월당 성눌의 활동*

이 중 수 **

〈목차〉

- I. 머리말
- II. 보월사의 창건과 운봉 대지의 증창
- III. 보월사 출신의 환성대사 문도
- IV. 화월당 성눌의 불상·불화 조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설악산 백담사에 전해오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 장소인 강원도 평강 보월사와 여래좌상의 조성을 주도한 화월 성눌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평강 보월사의 내력을 기록한 「보월사증수비」(1681)에 따르면, 17세기 후반 운봉 대지가 보월사를 증창하였다. 대지는 보월사를 증창하고 『심성론』을 저술하였는데, 아마도 보월사를 근거지로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자 하였던 것 같다.

18세기 보월사는 환성대사 지안의 문도들이 경영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화월 성눌이다. 성눌은 1748년에 보월사에서 불상과 불화의 조성을 주도하고

* 본 논문은 2023년 11월 4일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과 이운 그리고 복장 유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순천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그 발원문을 썼다. 발원문 내용에 따르면 불상 4위, 보살상 1위, 불화 9부를 조성하여, 삼각산 태고사에 관음보살상과 제석탱을 이안하고, 보개산 안양암에 명부탱과 제석탱을 이안했으며, 보월사 대법당에 삼존상과 상단 후불탱, 중단 삼장탱, 제석탱, 천룡탱을 봉안하고, 보월사의 백련사에 아미타불상, 후불탱, 명부탱을 봉안하였다.

보월사 출신의 완월 귀홍은 안변 석왕사 함월 해원의 법을 이었는데, 함월 해원과 화월 성눌은 환성대사의 법통을 이었다. 이를 통해 평강 보월사와 안변 석왕사가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화월 성눌은 석왕사에서 간행한 불서의 시주질에 그 법명이 보인다. 귀홍이 1748년의 보월사 불사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였는지 현존하는 기록이 미비하여 확인되지 않지만, 석왕사와 보월사의 관계로 볼 때, 시주자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보월사는 19세기 후반에 거의 폐사되고, 대법당에 있던 불상 가운데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은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봉안되었다가, 아미타불상은 설악산 백담사로 다시 이안되었다. 그리고 석가상은 최근에 서울 봉국사에 봉안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주제어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평강 보월사(平康 寶月寺), 운봉대지(雲峰大智), 화월성눌(華月聖訥), 완월귀홍(甌月軌泓)

I. 머리말

설악산 백담사에 전해오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그 복장에서 발견된 기록을 통해 1748년(영조 24) 강원도 평강군 운마산 보월사(寶月寺)에

서 화월 성눌(華月聖訥, 1700~1763)이 주도하여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아직 보월사와 화월 성눌에 대해 연구된 글이 거의 없어서 불상의 조성 배경 및 그 역사적 의미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평강 운마산은 지금 북한 지역에 속해 있어서 보월사의 현황을 직접 답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어쩌면 전쟁의 여파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득이 확인되는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보월사와 성눌에 대해 논의할 수 밖에 없다.

보월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1760년(영조 36)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9세기 읍지의 기록,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보월사중수비(寶月寺重修碑)」의 명문 등이 있다. 그리고 화월 성눌에 대해서는 1764년(영조 40)에 사암 채영(獅巖采永)이 집록(集錄)하여 간행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이하 『불조원류』)에 환성 지안의 문도로 기록되어 있고, 서명응(1716~1787)의 문집인 『보만재집(保晩齋集)』에 「화월당대사부도비(華月堂大師浮屠碑)」가 있다. 이 외에 파편적인 기록들을 모아서 보월사와 성눌을 연구할 수 밖에 없는 데, 다행히 보월사와 성눌에 대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17세기 보월사의 중창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세기 성눌과 교류했던 승려들에 대한 자료도 일부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월사의 창건, 17세기의 중창, 18세기 보월사의 환성대사 문도, 그리고 1748년에 화월 성눌이 보월사에서 어떤 불사를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월사와 화월 성눌의 관련성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대해본다.

II. 보월사의 창건과 운봉 대지의 중창

1760년의 『여지도서』 「평강현(平康縣)」조에 “보월사는 평강현 북쪽 장고산 14리에 있으며 88칸이다.”¹⁾ 라고 언급하고 있고, 1872년(영조 48)의 「평강지도(平康地圖)」에 보면 운마산 아래에 ‘보월사’가 표기되어 있다.²⁾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된 기록으로 1681년(숙종 7)에 건립된 「보월사중수비」의 명문이 남아 전한다.³⁾ 「보월사중수비」는 조종저(趙宗著, 1631~1690)가 찬술하고, 이우(李俔, 1637~1693)가 본문의 글씨를 썼으며, 이간(李儼, 1640~1699)이 제목을 전서(篆書)로 썼다. 여기에서 보월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평강 지도, 1872〉(규장각 소장)

부양(斧壤: 평강의 다른 이름)에서 직선 북쪽 14리에 있는 장고산은 운마산이라고도 한다. 그 산에 있는 보월사는 동쪽으로는 풍악산(금강산), 남쪽으로는 보개산이 모두 백 리가 되지 않는데, 가까이에 기이하고 뛰어난 동방제일도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서 보월사의 승경이 가리워졌고 마침내 보월사에

1) 「평강현」, 『여지도서』, “寶月寺 在縣北長鼓山十四里 八十八間”(한국고전종합DB).
 2) 「평강지도」, 『강원도지도』(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 국가유산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 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없고 여지(輿地)에도 실리지 않았다.⁴⁾

장고산 보월사가 금강산과 보개산의 명성에 가리어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여지』에도 실리지 못했으므로 비문을 통해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로 글을 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지』는 아마도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실제로 보월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보월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비문에서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태봉국 궁예의 유적이라 하는데 궁예는 서교(불교)를 신봉하였으니 이 절의 창건이 그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⁵⁾ 라고 하여, 후삼국시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월사의 창건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한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 찬술된 각종 사찰의 중수비에서 창건 시기를 신라나 고려시대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사암을 창건할 수 없고 기존의 사암을 수리하는 것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창건 시기를 고려시대 이전으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월사의 경우도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창건 시기를 후삼국시대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사찰의 창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대체로 승려들이 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동원되면서 거처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설령 산성에 속한 사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 창건하는 사찰의 승려들이 증창이라 주장하고 건물을 지으면 지방

4) 「평강 보월사중수비」, “直斧壤之北十四里有長鼓山一號雲磨山山之寺曰寶月東則楓岳南則寶蓋皆不百里而近有○奇絕特之稱爲東方第一道場故○月之勝爲其所掩遂無傳說之者興誌亦不載”(국가유산지식이음).

5) 「평강 보월사중수비」, “俗傳泰封弓裔遺跡而弓裔信奉西教則寺之○於其時可卜也”(국가유산지식이음).

관은 대체로 방조 내지 묵인하였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사찰이 들어서면 지방관으로서의 군역과 잡역 등의 승역(僧役)에 동원할 승려 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보월사의 증창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보월사중수비」를 찬술한 조종지는 보월사를 중수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신라와 고려의 폐단을 바로 잡고, 선교 양종의 승과를 없앴으며, 팔도의 승려들을 남한산성에 소속되게 하였다. 승려들에게 신역(身役)을 부과하였으니 마땅히 곡식이나 베를 바쳐야 할 것이요, 변란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방어하는 데 쓰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지금 이 절을 중수한 것은 다만 불가(佛家)의 공덕만이 아니라 실로 국가가 마땅히 원하는 일이다.⁶⁾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승려들을 비(非)속인이라 규정하고 군역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유학자들이 “무부무군의 국역을 피해 도망한 무리[無父無君 避役之徒]”라고 비난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승려들을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승역을 부과하였으므로 지방 관아에서는 승려의 수를 유지 내지 늘리는데 앞장섰을 정도이다.⁷⁾ 이러한 현상은 승려를 호적에 등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675년(숙종 1)에 윤희(1617~1680)는 승도를 호적 대장에 등재하자고 주장하였다.

6) 「평강 보월사중수비」, “我國懲羅麗之弊 革兩宗之科學 八路○徒而屬之南漢 簽身役 則當粟米麻絲之出 遭變亂 則有○聚○禦之用 國之所賴益 無異於四民 則蓋因其勢而導之也 斯乃聖朝之方便妙用 而庶幾於古聖王建極之治也 然則今茲佛宇之修葺 非特渠家之功德 實是國家之所當勸也”(국가유산지식이음).

7) 김선기,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265~284쪽.

예전에는 승도들을 호적에 넣지 않았습디만, 이제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여 대략이나마 통솔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⁸⁾

윤희의 건의는 받아들여져서 승려들도 마침내 호적대장에 등재하게 되었다. 이는 속인이 아닌 수행자로서 인식하던 승려를 속인의 양인처럼 대우하고 국가의 수취체제 속에서 논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월사는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기 전인 1666년(현종 7)에 증창되었으므로 승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 비문을 통해 17세기 말에 이미 유학자들이 승역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보월사의 증창 역시 국가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1666년에 이루어진 보월사의 증창은 풍담의 문인 대지(大智)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1681년 조종저(1631~1690)가 찬술한 「보월사증수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절은 오래되었지만 다만 4개의 방(房)만 남아 있었는데, 병오년(현종 7, 1666년)에 풍담(1592~1665)의 문인 대지 스님이 여러 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왔다. 그는 절터를 개척하여 규모를 키워보겠다고 마음 먹고 그 무리 성린·해철·인휘·해담·초옥·의함·신희·해민 등과 의논하여 목재와 기와와 단청에 드는 공사 비용을 각자 주선하기로 하였다. 몇 해 되지 않아 종각과 동실·서실이 차례로 완성되었다.⁹⁾

8) 『속중실록』 1년(1675) 5월 9일, “鑿曰 自前僧徒不入於戶籍 而今則宜令其本郷入籍 略有統轄”(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평강 보월사증수비」, “寺既久而○只有四房 丙午歲 楓潭門人大智 遍遊諸山 來于此 思欲拓其址而增其制 與其徒性○·海哲·印輝·海湛·楚玉·義陷·神會·海敏等 謀之材瓦丹○工役之費 各有所幹 僅閱歲而鍾閣 東西室次第而成”(국가유산지식이음).

보월사에 4개의 방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수행자들이 머무는 조그만 암자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다. 언제부터 수행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대지가 이곳에 와서 여러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비문에서 ‘중창’이라고 하지 않고 ‘중수’라고 하였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단청 등의 공사 규모로 볼 때 중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을 중수라고 표현한 것은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새로 창건한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러면 왜 대지는 이미 번듯하게 중창되어 있는 기존의 다른 사찰로 가지 않고 조그만 보월사에 정착하며 중창하였던 것일까?

위 인용문에서 ‘풍담의 문인 대지’라고 한 글에서 풍담은 풍담대사 의심(義諶, 1592~1665)을 가리키고 대지는 운봉대사를 말한다. 1764년에 사암 채영이 집록한 『불조원류』에 의하면, 청허 휴정(1520~1604) - 편양 언기(1581~1644)의 계보에 풍담 의심(楓潭義諶)과 우화 설청(雨花說淸)이 있고, 풍담 의심의 문인 중에 운봉 대지(雲峰大智)가 보인다.¹⁰⁾ 또한 「회양표훈사풍담당의심대선사비문(淮陽表訓寺楓潭堂義諶大禪師碑文)」의 ‘문정질(門庭秩)’에 ‘대지(大智)’라는 범명이 보인다. 그리고 대지가 찬술한 『운봉선사심성론(雲峯禪師心性論)』(이하 『심성론』)에서 스스로를 “청허후예 우화상족 운봉자대지(淸虛後裔 雨花上足 雲峰子大智)”라 하였다. 즉 운봉 대지는 풍담의 문인이면서 그 제자인 우화 설청의 상족이었던 것이다.

풍담 의심은 편양문파의 적전으로 평가받는 승려이다. 그 문하에서 상봉 정원(1627~1709), 월담 설제(1632~1704), 월저 도안(1638~1715) 등 조선 후기 최대의 문파가 탄생하였다. 보월사의 경우도 그의 문파를 나타내는 진영 봉안에 대해 「보월사중수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 『불조원류』(『한국불교전서』 10, 107쪽,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서쪽에 건물을 지어 서산·사명·편양·동산·풍담·명진·무영·춘파·우화·아홉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려 때의 국사이신 태고 보우 이후의 적통을 계승한 분들이다.¹¹⁾

대지가 서산으로부터 우화까지 여러 고승의 진영을 조성하여 봉안했던 것은 고려 말 태고 보우로부터 전해오는 법맥의 적통이 주석하는 사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승인 우화가 그 적통에 있음을 나타내어 대지 스스로도 그 법맥의 계승자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을 것이다.

대지는 『심성론』을 저술하여 일성설(一性說)과 다성설(多性說)의 심성 논쟁을 소개하고 스스로 다성설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²⁾ 일성설은 ‘사람마다의 법신은 전체적으로 합하면 하나가 된다’[人人法身 摠爲一者]는 주장이고, 다성설은 ‘사람마다 각각 원만하다’[人人各各圓滿]는 주장이다. 일성설은 법신이 하나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다성설은 사람마다 각각 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신은 여럿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대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법신 밖에 다시 ‘모두 합하면 하나가 되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논쟁 꺼리가 있게 될 것이다. 왜인가? 두 귀신이 하나의 시체를 다투는 것과 같고, 공공의 물건을 취해서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¹³⁾ 라고 주장하며 일법신설,

11) 「평강 보월사중수비」, “作堂其西以安西山·四溟·鞭羊·東山·楓潭·○眞·無影·春坡·雨花 九名師眞影 此皆麗朝國師太古普愚以後正嫡繼承者也”(국가유산지식이음).

12) 이종수, 「조선 후기 불교계의 심성 논쟁 - 운봉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9, 보조사상연구원, 2008, 261~293쪽.

13) 『심성론』(『한국불교전서』 9, 4쪽), “若人云 自法身之外 更有都爲一法身者 應有諍論之勢 何也 若二鬼之爭一屍也 亦如取公然之物 爲自己之物者也”(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즉 일성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풍담 스님은 “각각의 사람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이치를 설한 사람들로써 또 소요(逍遙)·벽암(碧岩)·취미(翠微)·춘파(椿坡)·청엄(淸嚴)·허백(虛白) 등이 있었는데, 이들 중 사들에게 나는 직접 배웠다.¹⁴⁾

운봉 대지가 자신의 주장이 여러 종사들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배웠던 승려들을 내세웠는데, 이 가운데 풍담 의심을 비롯하여 소요 태능(1562~1649), 춘파 쌍언(1591~1658), 허백 명조(1593~1661), 청엄 석민(淸嚴釋敏)은 청허계이고, 벽암 각성(1575~1660)과 취미 수초(1590~1668)는 부휴계 승려이다. 당시는 청허계와 부휴계의 계파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대부분 계파와 상관 없이 고승을 찾아가 수학하였으므로 당대 최고의 고승을 언급하였던 것 같다.

한편 1686년(숙종 12)에 자장(自章)이 쓴 『심성론』 서문에서 “운봉선사가 옛날의 고전만을 보려 하지 않고 80의 나이에 스스로 답하여 분명히 설하고 간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¹⁵⁾ 고 하였고, 또 『심성론』 말미에서 대지와 교류했던 호곡(壺谷) 남용익(1628~1692)이 운봉선사에게 병인년(1686) 7월에 서문을 부탁받았으나, 서문은 이름 있는 사람이 이미 지었으므로, 나는 시를 한 편 쓴다¹⁶⁾ 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

14) 『심성론』 부록(『한국불교전서』 9, 14쪽), “楓潭曰 人各有不亡者存焉 此其證也 演者又有逍遙碧岩翠微椿坡淸嚴虛白 此等宗師 愚夫面受之”(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15) 『심성론서(心性論序)』(『한국불교전서』 9, 1쪽), “雲峰不揆是古非今之意 年八十自答辨說 刻梓方印 以示千千”(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16) 『심성론』 부록(『한국불교전서』 9, 14쪽), “雲峯老師 丙寅初秋 以道不遠人之句 請序於余 而心性論一序 名人已作 余但取心性論中一顯詩 以道之”(불교기록문화

봉선사는 1686년 무렵에 80세의 노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지가 1666년경에 보월사를 증창했고 1681년에 「보월사중수비」를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대지가 보월사에 정착한 1660년 즈음은 대략 50대였을 것이고 『심성론』을 저술한 1684~85년 무렵은 70대의 노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대지는 자신의 사상을 펼칠 장소로 보월사를 택하여 증창하였고 그곳에서 『심성론』을 저술했던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심성론』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보월사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지는 자신의 사상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서 조선 최고의 법통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보월사를 증창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지가 보월사를 증창했던 의도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 보월사를 찾았던 임수간(1665~1721)은 「보월사 도상인의 시축에 제하다[題寶月寺道上人詩軸]」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반 계승만으로도 육진을 쓸어낼 수 있거늘 / 半偈猶堪掃六塵
 세간에서 무엇하러 시인을 찾겠는가. / 世間何事覓詩人
 이에 한 번 돌아가 귀의한 곳 / 從茲試返歸依地
 보월사의 맑은 빛이 절로 새롭네. / 寶月光自在新¹⁷⁾

위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임수간의 생몰연대로 볼 때 대략 1700년 전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월사는 사찰의

유산아카이브).

17) 「제보월사도상인시축(題寶月寺道上人詩軸)」, 『둔와유고(遯窩遺稿)』 권1, “半偈猶堪掃六塵 世間何事覓詩人 從茲試返歸依地 寶月光自在新”(한국고전종합DB).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1760년의 『여지도서』 평강현조에서 보월사의 규모를 88칸이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운봉 대지가 보월사를 증창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보월사는 규모 있는 사찰로서 운영되고 있었다.

운봉 대지 이후 보월사의 경영은 『심성론』에 나오는 대지의 제자인 신수(神秀), 신회(神會), 일선(一禪) 등이 이끌어갔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18세기 보월사는 환성 지안(1664~1729)의 문도들이 주도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승려가 화월 성눌이다.

III. 보월사 출신의 환성대사 문도

환성 지안은 15세에 출가하여 용문산 상봉 정원(1632~1709)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17세에 월담 설제(1632~1704)에게서 법을 이었다. 정원과 설제는 모두 풍담 의심의 제자이고, 의심은 편양대사 언기의 제자이므로, 지안은 청허계 편양문파의 선사이다. 운봉 대지 역시 풍담 의심 - 우화 설칭의 법맥을 이었으므로 대지와 지안은 법맥에서 사촌이었던 셈이다.

환성 지안의 계사(戒師)인 상봉 정원과 법사(法師)인 월담 설제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자 선승이었는데 그 문하에서 수학했던 지안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27세가 되던 1690년에 직지사에서 화엄 종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모운 진언(1622~1703)의 강학장에 갔다가 곧바로 그 자질을 인정받고 강석을 물려받았을 정도였다. 1724년에는 금산사 화엄대회의 설주(說主)가 되었는데 모인 대중이 1,400여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의 화엄대회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모이자 누군가 지안을 무고(誣告)하였다. 이 사건으로 지안은 불행하게도 1729년(영조 5)에 역도의 누명을 쓰고 제

주도로 유배되어 7일 만에 병사하였다.¹⁸⁾ 그러나 그의 저술인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와 『환성시집(喚惺詩集)』은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문도는 18세기 이후 불교계의 가장 큰 문파를 이루었다.

환성 지안의 문집으로 『환성시집』이 전하는데, 그 문집을 편록(編錄)한 승려가 보월사 출신의 화월당 성눌이었다. 성눌은 『불조원류』에 지안의 제자로 법명이 올라 있으며,¹⁹⁾ 스승 지안으로부터 받은 「화월당에게 보이다[示華月堂]」라는 시가 전한다.

선원에서 추우면 불상을 불에 지피고 / 入院寒燒佛
경을 계속 읽어서 마구니를 깨닫거든 / 看經轉覺魔
문을 나가 큰 길을 가다가 / 出門行大路
맨발로 산의 노래를 부르라. / 赤脚唱山歌²⁰⁾

선가(禪家)에서 불상을 태운다는 것은 당나라 단하 천연(739~824) 선사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 불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경을 읽어서 마구니를 깨닫는다는 것은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불교는 선원과 강원이 공존하면서 선사가 곧 강사이고 강사가 곧 선사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 불교를 선교일치(禪教一致)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안은 위의 시를 통해 성눌에게 선과 교를 공부하되 얽매이지 않아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성눌의 생애에 대해서는 「화월당대사부도비(華月堂大師浮屠碑)」를 통해 대략

18) 『환성대전사비문』(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신문관, 1918, 529~532쪽).

19) 『불조원류』에서는 '性訥'로 기록되어 있으나, 비문을 비롯한 다른 문헌에서는 '聖訥'로 기록되어 있다. 『불조원류』 今上御製太古碑閣懸板(『한국불교전서』 10, 111쪽).

20) 「시화월당(示華月堂)」, 『환성시집』; 『대동영선(大東詠選)』(『한국불교전서』 9, 470쪽; 『한국불교전서』 12, 549쪽,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적으로 알 수 있다.

법사는 법명이 성놀이고 법호가 화월이다. 또 부암(斧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그가 평강에서 태어나서 평강 보월사에서 삭발하였기 때문이다. … 마침내 동남쪽으로 운수행각을 떠나 송우대사를 만났고, 또 남악화상을 만났으며, 또 환성대선사를 만났다. 환성대사는 성놀과 도에 대해 이야기 한 후 크게 기이하게 여기고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 심인(心印)을 전수하였다. … 환성대사가 호남 금산사에서 화엄대회를 개설하여 대중이 1,400명이 모였으니, 선가에서 성대한 법석이 기원정사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 당시 환성의 문하에 있던 자로 설송당 연초, 호암당 체정, 낭연당 신감, 함월당 해원이 있었는데 … 매번 법사에게 질문을 하였다.²¹⁾

위 비문에서 보듯이 환성 지안의 문하에 당대 최고의 강백이자 선사들이 즐비하였으나 화월 성놀이 그의 법을 이은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는 청허계와 부휴계가 분명하게 나뉘고 전국의 선사들이 법맥의 적통임을 천명하던 때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마침내 비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태고 화상은 환암, 구곡, 등계, 벽송, 부용, 서산, 편양, 풍담, 월담에게 전하고 환성에 이르러 마침내 크게 번성하였는데 오직 화월이 그 의발을 얻었다고

21) 「화월당대사부도비」, 『보만재집』 권11, “法師聖訥其名 華月其號 又號斧庵 以其生于平康 剃髮于平康之寶月寺 … 遂飛錫雲遊於東南 見松耦大師 又見南岳和尚 又見喚醒大禪師 喚醒與語道 大異之 携入丈室 傳以心印 … 喚醒設華嚴大會於湖南之金山寺 法衆千有四百 禪家稱設法之盛 祇園以後未有也 … 當是時 遊喚醒之門者 如雪松堂演初 虎巖堂體淨 醉眞堂處林 朗然堂信鑑 涵月堂海源 … 輒於師取質焉”(한국고전종합DB).

한다.²²⁾

고려 말 태고 보우로부터 이어온 범통이 환성 지안에 이르고, 지안의 범통을 화월 성눌이 계승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비문의 찬술자는 서명응이지만 비문의 초안에 해당하는 화월 성눌의 「행장」은 그의 제자들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아쉽게도 행장이나 비문의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연화질이나 시주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화월당비문」을 주도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위 비문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성눌의 제자들이 스승을 적통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가장 큰 근거는 아마도 성눌이 스승 지안의 문집을 편록한 점이었을 것이다. 스승의 문집을 편록했을 정도라면 당대에 이미 성눌이 지안의 상족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오봉(龔峯)은 「환성의 시권에 제하다[題喚惺詩卷]」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환성 스님의 제자 해원과 성눌은 용상의 덕을 지닌 분들이다. 성눌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청하기에 4구로 답하기를, “유마가 보인 병은 병이 아니요, 가섭의 말 없음이 말씀이라 한 것이 바로 그대 스승의 행장이네. 도의 본체는 텅 빈 산에 비치는 달빛이요, 마음의 법은 흐르는 물에 핀 밝은 꽃이라 한 것이 바로 그대 스승의 문사이네.”라 하였다.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성눌이 돌아 가면 해원도 당연히 머리를 끄덕이리라.²³⁾

22) 「화월당대사부도비」, 『보만재집』 권11, “太古傳之幻庵·龜谷·登階·碧松·芙蓉·西山·鞭羊·楓潭·月潭 至于喚醒 遂大以蕃 獨華月得其衣鉢云”(한국고전종합DB).
 23) 「제환성시권(題喚惺詩卷)」, 『환성시집』(『한국불교전서』 9, 467쪽), “惺師弟子 海源聖訥 龍象也 訥來請余言 爲四句曰 維摩示病非病 迦葉不言是言 乃爾師之行藏 道體山空月照 心法水流花明 乃爾師之文辭 何以多爲 訥乎歸而源也當爲點頭”(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성눌이 찾아가 글을 청한 오봉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는 환성대사의 제자로 성눌과 해원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해원은 환성 지안의 행장을 지은 함월 해원(1691~1770)이다. 아마도 해원이 스승 지안의 행장을 지었고 성눌이 문집을 편록하였기 때문에 성눌과 해원을 지안의 상족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해원은 스승의 행장에서 “지금 전국에서 선을 희롱하고 교에 통달한 자들은 모두 선사의 풍격이다.”²⁴⁾ 라고 하여 지안의 선풍이 전국에 미쳤다고 하였는데, 당시 지안의 문하에서 수학한 선사라면 누구라도 그의 법맥을 계승하였다고 자처하였을 정도이다.

함월 해원 역시 지안의 법맥을 계승한 적통임을 자처하였다. 그의 비문에 “임제종의 법맥이 흘러서 청허 휴정에 이르고 또 5세가 지나 해원을 얻었으니, 이 분이 바로 환성 지안의 의발을 전수받은 적전이다.”²⁵⁾ 라고 하였던 것이다. 해원의 문집으로 『천경집(天鏡集)』이 있으며, 19세기 초 해남 대흥사에서 편찬된 『대둔사지』에서는 12종사(宗師) 가운데 11번째로 그 법명이 올라 있다. 해원은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보내며 후학을 가르쳤는데, 그의 글인 「이선경위록(二禪涇渭錄)」은 사람과 법에 의거하여 조사선과 여래선, 격외선과 의리선을 구분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19세기 백파 공선(1767~1852)과 초의 의순(1786~1866)이 벌인 선 논쟁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해원의 제자 가운데 보월사 출신의 완월 궤홍(翫月軌泓, 1714~1770)이 있었다. 궤홍은 12세 때 보월사에서 삭발하고 출가하였으나 그가

24) 「환성화상행장(喚惺和尚行狀)」, 『환성시집』(『한국불교전서』 9, 476쪽), “今海內 弄禪通教者 乃師之風也”(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25) 「함월선사비」, “臨濟之宗 流至清虛休靜 又五世而得釋海源也 是惟喚醒志安衣鉢嫡傳也”(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557~558쪽).

26) 이종수, 「조선 후기 삼문수학과 선 논쟁의 전개」, 『한국불교학』 63, 한국불교학회, 2012, 209~233쪽.

법을 이은 스승은 함월 해원이었다. 석왕사에서 해원으로부터 불법의 종지를 얻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후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궤홍이 1770년 11월 23일에 입적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해원도 입적하여 같은 해에 스승과 제자가 열반하였다. 해원의 비문은 영의정 김상복(1714~1782)이 찬술하고, 궤홍의 비문은 대제학 황경원(1709~1787)이 찬술하였다. 또 궤홍의 비문에는 쌍계 이복원(1719~1792)과 변암 채제공(1720~1799)의 진영찬(眞影讚)이 실려 있다.

스님이 입적했다고 말하자니 / 謂師昧寂也

서산의 달 남아 영겁의 세월 비추고 / 西峯之月留照浩劫

스님이 멸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니 / 謂師不滅也

눈 속의 무지개 이른 아침 동안에 사라졌네. / 雪中之虹崇朝無跡

나는 모르겠으나 / 吾不知

스님의 생과 멸이 허깨비 경계에서 절절했던 것은 / 其生與滅切切於幻化之境者

허망한 것이요, / 妄也

승려들이 달려와 슬피 울며 / 龍象之奔走悲泣

허무의 진영을 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 欲壽虛無之眞者

허망함 중에서도 허망함이라네 / 妄中之妄也²⁷⁾

그런데 어떻게 해원과 궤홍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로부터 비문과 진영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주석했던 석왕사가 태조 이성계가 왕업을 이루기 전에 오백나한재를 개설했던 기도처이기도 하고 태조와 인연이 깊었던 무학대사 자초가 머물렀으므로²⁸⁾ 고위 관리들이 다

27) 「완월당대사진찬(玩月堂大師眞贊)」(『변암집(樊巖集)』 권58, 한국고전종합DB).

28)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1, 106쪽.

너가는 사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상복과 황경원 역시 석왕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비문에서 해원과 궤홍을 만났던 인연을 서술하고 있다. 김상복은 「함월선사비문」에서 “내가 함경도 학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를 기억하니, 해원과 그 제자 궤홍이 석왕사에 주석하며 경전을 강의하고 계행을 닦았는데 나는 그때 본 일을 잊을 수 없다.”²⁹⁾ 라고 하였고, 황경원은 「완월대사비문」에서 “내가 일찍이 바다 북쪽을 유람하다가 설봉산의 사찰에서 완월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다.”³⁰⁾ 라고 하였다.

해원과 궤홍이 입적한 이후 석왕사 승려들은 1792년(정조 16)에 ‘휴정과 유정은 임진왜란 때의 전공(戰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우고 사액을 하였는데, 무학대사는 곧 개국원훈(開國元勳)인데도 전적으로 봉향(奉享)하는 곳이 없다’며 사액을 요청하였고, 결국 정조는 밀양 표충사와 해남 대둔사의 전례에 따라 사액하라고 명하게 된다.³¹⁾

석왕사의 무학대사 사당에 사액되기 전에 이미 밀양의 사명대사 영당(靈堂)과 해남 대둔사가 ‘표충(表忠)’의 사액을 받은 바 있었다. 밀양 승려들은 합천 해인사 승려들과의 갈등 끝에 1738년(영조 14)에 사명대사 영당에 ‘표충’의 사액을 받았고, 해남 대둔사의 ‘표충’ 사액은 1788년 7월 5일에 윤허되었다.³²⁾ 당시 대둔사에서는 표충원의 사액을 알리며 전국의 사찰로부터 보시를 받았는데, 1789년에 작성된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

29) 「함월선사비문」, “記余宰鶴城時 師與其徒軌泓 住錫釋王寺 講經旨修戒行 余見而不能忘”(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557~558쪽).

30) 「완월대사비문」, “余嘗遶海北游 一見翫月於雪峯寺中”(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556~557쪽).

31)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윤4월 24일 1번째 기사. “浩修又啓言 釋王寺土窟舊址 有無學師小像 僧徒齊言 休靜惟政 以壬辰戰功 皆立祠賜額 無學卽開國元勳 而未有專享 願歸達天聽 移摸小像 仍奉於土窟 春秋以祀云 請依願許副 從之 仍命賜額之舉 依密陽表忠海南大茆寺例 大師之號 亦用兩寺之例 祠額曰釋王.”(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편, 556~557쪽).

32) 『승정원일기』, 정조 12년(1788) 8월 4일 기사(한국사데이터베이스).

功錄』에 보면 보월사에서도 1냥(兩)을 보시하였다.³³⁾

이러한 사실들로 보자면 아마도 해원과 궤홍 역시 석왕사에 사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의 유지를 받들어 석왕사 승려들이 사액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들이 중앙 정부의 유력한 권력자들과 친분을 쌓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궤홍이 보월사 출신 화월 성눌의 법을 잇지 않고 해원의 법을 이은 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완월대사비문」에 따르면, 궤홍은 1714년 3월에 태어나 12세에 보월사에서 출가했다고 하였으므로 대략 1726년경부터 20세가 되는 1734년경까지 보월사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눌은 그의 은사(恩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성눌은 해원과과는 법맥에서 형제지간이다. 그런데 궤홍은 성눌이 아니라 해원의 법을 이어 그 적통이 되었다. 기록이 부족하여 그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성눌과 해원이 서로 적통임을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궤홍과 성눌의 사이가 어떠한지를 궁금한 대목이다. 아무튼 궤홍은 안변 석왕사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입적하였는데, 그의 문도로는 동계 설취(東溪雪翠), 정파 도운(靜坡道潤), 환봉 도각(幻峯道覺), 뇌묵등린(雷默等麟, 1744~1825) 등이 있다.

IV. 화월당 성눌의 불상·불화 조성

화월당 성눌은 14살에 운마산 보월사에서 옥심 장노에게 출가하였고 자운당 탄규 대사에게 수학하였다. 태어난 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63

33) 『표충설립유공록』, “己酉五月日”(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년 봄에 법랍 51세로 입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70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법사는 환성 문하에서 10년을 공부하여 모든 종지의 가르침을 확연히 밝힌 후에 다시 맑고 꽃피는 바닷가 동쪽 지역을 운수행각하다가 금강산에 들어가 간간이 보개산, 오성산, 운마산을 왕래하였다. 무리들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도를 강의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다시 보월사로 돌아와 대중을 해산시키고 오로지 정혜를 연구하여 60세가 되었다.³⁴⁾

성눌이 환성 지안에게 법을 받고 여러 산사를 유람한 이후 보월사에 정착한 것이 60세 무렵이라고 하였으니 대략 1760년경이었을 것이다. 여러 산사를 다니며 운수행각하였지만 그에게 마음의 고향은 운마산 보월사였던 것 같다. 말년에 보월사에 정착하기 전에도 보월사의 불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는데, 1748년에 조성된 백담사 목조아마타여래좌상의 발원문에 성눌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앞드려 생각건대 제자 성눌은 진실한 성품을 어기고 미혹한 길로 들어서
… 여러 생애 지은 업장 일체 허물을, 우러러 자비로우신 삼보 전에 일심으로
참회 하옵니다. 지금 본사에 옛날 불상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좀 먹고
손상되어 대중들이 새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추진하는 이가 없어서,
제자 성눌이 먼저 주창하며 지팡이 짚고 500리 길 서울에 가서 여러 단월들을
찾아갔습니다.³⁵⁾

34) 「화월당대사부도비」, 『보만재집』 권11, “師鍊業喚醒凡十年 悉闡宗教 然後復周遊 清海花江東州 入金剛山 間往來寶蓋五聖雲磨 徒衆四至 講道幾三十年 復還寶月 散遣徒衆 專精於定慧 時年六十”(한국고전종합DB).

35) 성눌, 「보월사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雲磨山寶月寺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보월사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고 그 발원문을 성눌이 지었다. 성눌은 자신이 출가한 사찰의 불상이 좀 먹고 손상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시주를 받아왔다. 그리고 화주 승 성수, 광희, 은혜, 치일 등은 천촌만락을 다니며 시주를 받아왔다.³⁶⁾ 이렇게 고생하여 받아온 시주금으로 1748년 5월부터 7월까지 불상과 불화를 새로 조성하여 여러 곳에 봉안하였다.

성눌이 지은 발원문에서 새로 제작했다고 언급한 불상은 석가불 1위, 약사불 1위, 아미타불 2위, 관음보살 1위이며, 불화는 상단후불탱 2부, 중단삼장탱 1부, 명부탱 2부, 제석탱 3부, 천룡탱 1부이다. 이 불상과 불화는 보월사를 비롯하여 삼각산 태고사와 보개산 안양암에도 봉안하였다. 봉안 장소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보월사〉 : 삼존상(석가불 1위, 약사불 1위, 아미타불 1위), 삼존상 상단후불탱 1부, 중단삼장탱 1부, 제석탱 1부, 천룡탱 1부
 〈보월사의 백련사〉 아미타불 1위, 후불탱 1부, 명부탱 1부
 〈삼각산 태고사(太古寺)〉 : 관음보살 1위, 제석탱 1부
 〈보개산 안양암(安養菴)〉 : 명부탱 1부, 제석탱 1부³⁷⁾

(1748), “伏念弟子聖訥 自違眞性 枉入迷流 … 累生業障 一切愆尤 仰三寶之慈悲 瀝一心而懺悔 茲者 至于本寺 舊像雖存 蠹損殆盡 衆欲改新 無人尸事 弟子聖訥 爲人首倡 半千京洛 一筇飄然 幾處檀家”(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36) 성눌, 「보월사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1748), “化主 聖修·廣懷·恩惠·致一等 千村萬落 愛軟而誘之”(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37) 성눌, 「보월사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1748), “敬造釋迦文佛一位 藥師尊佛一位 阿彌陀佛二位 觀音菩薩一位 上壇後佛幀二部 中壇三藏幀一部 冥府幀二部 帝釋幀三部 天龍幀一部 而彌陀一位後佛幀一部 冥府幀一部 奉安于本寺白蓮社 觀音一位 帝釋幀一部 移安于京畿楊州地三角山太古寺 冥府幀一部 帝釋幀一部 移安于本道鐵原地寶蓋山安養菴 三尊像上壇後佛幀一部 三藏幀一部 帝釋幀一部 天龍一部 奉安于本寺 而始役於戊辰之夏五月 畢功於其年之秋七月”(한

성눌이 지은 발원문은 새로 조성한 불상과 불화 전체의 발원문이었던 것 같다. 그 제목에서도 ‘운마산 보월사 불상신조성 회향발원문(雲磨山寶月寺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발원문은 새로 조성한 불상을 완성한 이후 지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불화의 발원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성눌의 「발원문」에는 손상된 기존의 불상을 수리했다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불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손상된 불상을 수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그 불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기존의 불상은 태우거나 묻고 새롭게 불상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월사에 봉안한 불상과 불화 가운데 일부는 백련사(白蓮社)에 봉안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백련사는 보월사 내에 있던 수행 결사체로서 별도의 구역에 법당과 요사체가 있었던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백련사는 ‘백련결사(白蓮結社)’의 줄임말이다. 중국 동진의 여산 혜원(334~416)이 처음 시작한 결사의 명칭이 백련결사였고, 고려시대 원묘국사 요세(1163~1245)가 강진 만덕사에서 결성한 백련결사가 있다. 백련결사는 염불 수행하는 결사체였으므로 보월사의 백련사 역시 아미타 염불의 수행결사체였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때 조성한 아미타불상을 백련사의 법당에 봉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월사에 봉안한 삼존상, 상단후불탱, 중단삼장탱, 제석탱, 천룡탱은 모두 하나의 큰 법당에 봉안된 것 같다.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영우(永愚)가 지은 또 다른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제목에서 “1748년 6월 강원도 평강현 운마산 보월사 대법당 불상을 새로 조성하고 다라니를 써서 복장에 봉안하고 회향하는 발원문[乾隆十三年戊辰六月日 江原道平江縣 雲磨山 寶月寺 大法堂 佛像新造成 腹藏陀羅尼書入 回向發願

文]”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당에 상·중·하의 불단을 마련하여 상단 삼존상, 중단 삼장탱, 하단 제석탱·천룡탱이 봉안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성눌의 「발원문」 말미에 불상 조성의 증사(證師)로서 “조계종 청허 5세손 환성문인 호암당 대선사 체정, 호암문인 만화당 대선사 원오, 대공덕주 환성문인 화월당 성눌”³⁸⁾ 이 기록되어 있다. 체정의 증사 참여에 대해서는 『연담대사임하록』과 『동사열전』에서도 “무진년(1748) 3월 강원도 장구산에서 53불을 조성할 적에 스님은 증사로 초청받아 갔다.”³⁹⁾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장구산은 ‘장고산 보월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무진년 3월에 53불을 조성하였다’고 한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보월사 불상을 조성하기 전에 53불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5~7월에 조성한 보월사 불상과 불화를 통칭하여 53불이라고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체정의 제자 영곡 영우(靈谷永愚)가 송주(誦呪)에 범명을 올리고 있다.⁴⁰⁾ 영우는 앞서 언급하였던 1748년 불상에 회향발원문을 써서 복장에 넣었던 승려이다. 이처럼 보월사 불사에 호암 체정과 그 제자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체정 역시 환성 지안의 법맥을 이은 제자로서 성눌과 긴

38) 성눌, 「보월사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1748), “曹溪宗 清虛五世孫 喚惺門人 虎巖堂大禪師體淨 虎岩門人 萬化堂大禪師 圓悟 大功德主 喚惺門人 華月堂 聖訥”(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39) 『연담대사임하록(蓮潭大師林下錄)』 [부록](『한국불교전서』 10, 284쪽), “戊辰春 參霜月師主於法雲庵 三月江原道長丘山 造成五十三佛 請先師坐證席 師主許赴”(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 『동사열전(東師列傳)』(『한국불교전서』 10, 1026쪽), “戊辰三月 江原道長丘山 造成五十三佛 請師坐證席 師許赴”(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40) 『불조원류』(『한국불교전서』 10, 112쪽), “清虛下第五世虎巖淨嗣 六世 燕海廣悅 萬化圓悟 楓嶽普印 靑峰巨岸 靈谷永愚 瑞雲時演 雪坡常彥 龍坡道周 蓮潭有一”(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밀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748년 불상 조성에서 송주(誦呪)로 참여한 승려 가운데 연곡 선수(蓮谷善壽)가 있는데, 그는 월담 설제 - 청하 삼인(靑霞三印) - 보월 한웅(寶月漢雄)으로 이어지는 법맥에서 한웅의 제자이다.⁴¹⁾ 성눌 역시 월담 설제의 손제자이므로 선수의 스승인 한웅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연곡 선수는 1764년(영조 40)에 완주 송광사에서 사암 채영(獅巖采永)이 여러 산문의 승려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계파의 법맥을 정리하여 간행한 『불조원류』의 시주질에 그 법명이 올라 있다.

당시 보월사의 불상과 불화 조성은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함월 해원의 문집인 『천경집(天鏡集)』 「석왕사법당중수 및 육대보살금상 조성기[釋王寺法堂重修及六大菩薩金像造成記]」에서 보월사의 불사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보인다.

불전의 조성은 무신년(1728)에 있었고, 보살상의 조성은 무오년(1738)에 있었다. 모두 같은 무(戊)의 해이니, 실로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평강 보월사의 석가불상과 이천 실상암·덕원 적조암·황룡산 극락암 세 곳의 관음보살상도 한 때에 조성되었는데 모두 무(戊)의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⁴²⁾

석왕사에서 무신년(1728)에 법당을 중수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무오년(1738)에 육대보살상을 조성했으며, 평강 보월사의 석가불상과 이천 실상암·덕원 적조암·황룡산 극락암의 관음보살상 역시 모두 '무(戊)의 해

41) 『불조원류』(『한국불교전서』 10, 114쪽), “寶月雄嗣 蓮谷善壽 寧谷印宗 重巖快鵬”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42) 「석왕사법당중수육대보살금상 조성기」, 『천경집』(『한국불교전서』 9, 614쪽), “佛殿之成 在於戊申 菩薩像之成 在於戊午 同一戊則固是異事 而至於平康寶月寺之釋迦像 伊川實相庵 德原寂照庵 黃龍山極樂庵 三所 觀音像 一時而成 并不出一戊字之外”(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에 조성했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보월사의 석가불상은 1748년에 조성된 삼존상의 주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48년은 무진년(戊辰年)이기 때문이다. 해원이 삼존상이라 하지 않고 석가불상만을 언급한 것은 앞서 성눌의 「발원문」에서 언급되었던 삼존상의 주불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 같다. 이처럼 해원이 1748년 보월사의 불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성눌의 「발원문」에는 해원과 궤홍의 법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해 1752년(영조 28) 안변 석왕사에서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金剛般若經疏論纂要判定記會編)』을 간행할 때 그 시주질에 화월 성눌의 법명이 올라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아마도 해원과 궤홍 역시 1748년 보월사 불사의 연화질이나 시주질에 법명을 올렸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문헌이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눌의 「발원문」에서 삼각산(북한산) 태고사에 보살상 1위와 불화 1부, 보개산 안양암에 불화 2부를 조성하여 이 안했다고 하였다. 태고사와 안양암이 성눌과 어떤 인연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태고사와 안양암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태고사는 원증국사 태고 보우의 승탑과 탑비가 있는 사찰이다. 보우는 고려 말에 원나라 석옥 청공(1272~1352)으로부터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온 조사이며, 조선 후기 불교계는 태고 보우의 법맥을 정통으로 공인한 바 있다.

성눌은 「발원문」의 말미에 국왕, 왕비, 세자의 천수를 축원하고 관찰사 홍봉조와 현령 유언술의 승진을 축원하며⁴³⁾ 보월사가 국가로부터 보호 받고 번영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보월사는 19세기 후반에 폐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1872년에 편찬된 『평강지도』에는 '보월사'가 표기되어 있

43) 성눌, 「보월사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1748), “奉祝 至行純德 英謨毅烈 大王殿下 壽萬歲 惠敬王妃殿下聖壽齊年 世子邸下聖壽千秋 道主方伯洪鳳祚 本邑太守 兪彥述 現登一品 當生淨土”(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으므로, 아마 그 이후에 폐사되었을 것이다. 19세기 사찰의 폐사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이는 18세기 중반 이후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승역이 과중해지면서 출가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의 속사(屬寺)나 진전(眞殿) 사원이 아니면 일반 사찰의 승려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균역과 잡역 등의 승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찰을 경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 보월사의 경우도 승역으로 인한 출가자 감소의 영향으로 폐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의 보월사의 상황에 대해 19세기 후반 기록인 백담사 목조아마타여래좌상의 「개금원문(改金願文)」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882년(임오년) 봄에 풀을 뽑고 바람을 우러르며 선지식을 찾아 강원도 평강 장구산을 찾았다가 빈 전각 속 사자좌 아래를 보니, 엄연히 불상이 시방을 비추고 있었는데 아미타불과 약사불 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야 지혜의 뗏목으로 옮겨 (화암사) 극락보전에 봉안하고 점안(點眼)을 마쳤지만 불상이 오래되다보니 부처님의 금의(金衣)가 흐릿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 여러 단월들이 안타깝게 여기다가 함께 개금하였습니다.⁴⁴⁾

강원도 고성 화암사가 1860~64년 사이의 화재로 전각과 불상이 불에 탔지만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82년에 평강 보월사에 갔다가 폐사된 사찰 전각에서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을 발견하여 화암사로 이안했다는 내용이다. 화암사에 봉안되었던 두 불상 가운데 약사불상은 그대로

44) 「개금원문」, “歲在光緒七年黑馬春 撥草瞻風 稽首于本道平康長丘山 空殿裡獅子座下 則儼然聖像照耀十方 彌藥師兩尊相也 因招般若之慧筏 奉安于極樂寶殿 而點畢 在古金衣模糊 無以起人 故○○法○ 共諸檀越悶然 與慕改獻”(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봉안되어 있고, 아미타불상은 1992년 이전에 백담사로 이안되었다. 그리고 본존인 석가상은 현재 서울 봉국사에 봉안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미타 불상과 약사불상을 이안하기 전에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던 것 같다.⁴⁵⁾

그 외 불상과 불화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미 다른 곳으로 반출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이안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보월사가 화재로 소실된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수행자가 없어 불상과 불화가 방치되고 도난되었을 정도라면 폐사된 지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보월사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강 보월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 1681년에 세운 「보월사증수비」에서는 후삼국시대라고 하였지만 역사적 사실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보월사와 관련한 가장 처음 나오는 기록은 양란 이후이다. 17세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창건되거나 증창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월사도 증창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7세기 후반 보월사를 증창한 승려는 운봉 대지였다. 그가 처음 보월사에 갔을 때 4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조그만 수행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을 대지가 증창하여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지는

45) 최수민, 「조선후기 강원지역 편양문종의 불사와 백담사 아미타여래좌상」,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0, 41~94쪽.

보월사를 중창하고 『심성론』을 저술하였는데, 아마도 보월사를 근거지로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자 하였던 것 같다.

18세기 보월사는 환성대사 지안의 문도들이 경영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화월 성눌이다. 그는 스승의 문집인 『환성시집』을 편록하였을 정도로 지안의 문도에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지안의 적통을 두고 성눌과 경쟁했던 승려 가운데 안변 석왕사에 주석하고 있던 함월 해원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 가운데 보월사에서 출가한 완월 궤홍이 있었다. 궤홍이 1748년의 보월사 불사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였는지 현존하는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석왕사와 보월사가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748년 성눌은 보월사에서 불상과 불화의 조성을 주도하고 그 발원문을 썼다. 발원문 내용에 따르면 불상 4위, 보살상 1위, 불화 9부를 조성하여, 삼각산 태고사에 관음보살상과 제석탱을 이안하고, 보개산 안양암에 명부탱과 제석탱을 이안했으며, 보월사 대법당에 삼존상과 상단 후불탱, 중단 삼장탱, 제석탱, 천룡탱을 봉안하고, 보월사의 백련사에 아미타불상, 후불탱, 명부탱을 봉안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보월사는 거의 폐사되고, 대법당에 있던 불상 가운데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만 고성 화암사로 이안되어 극락보전에 봉안되었다. 현재 석가상은 서울 봉국사에 봉안되어 있고, 아미타불상은 백담사에, 약사불상은 화암사에 봉안되어 있다.

(2024.03.02. 투고 / 2024.03.30. 심사완료 / 2024.04.08.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Bowolsa Temple in Pyeonggang
and the Activities of Hwawol Seongn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jong-su

This study explores Bowolsa Temple in Pyeonggang, Gangwon Province, the very site where the wooden Amitabha statue, presently housed in Baekdamsa Temple on Seoraksan Mountain, was originally crafted. Additionally, it delves into the life and contributions of Hwawol Seongnul, the monk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reation of this significant Buddha statue.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f the Renovation of Bowolsa Temple” (1681), which documents the history of Pyeonggang’s Bowolsa Temple, it was the monk named Unbong Daji who undertook the renovation of the temple in the late 17th century. Unbong Daji not only oversaw the temple’s restoration but also authored “The Theory on the Nature of Mind.” It is probable that he utilized the temple as a central hub to disseminate his philosophical ideas.

In the 18th century, Bowolsa Temple was administered by the disciples of Jian, the Great Master Hwanseong. Among these disciples, Hwawol Seongnul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figures. In 1748, Seongnul spearheaded the creation of Buddhist statues and paintings within Bowolsa Temple and authored the accompanying votive documents. According to the documents, Hwawol Seongnul created four

Buddha statues, one bodhisattva statue, and nine Buddhist paintings. Among his notable dedications, he presented an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and a painting of Śakra to Taegosa Temple in Samgaksan Mountain. Additionally, he donated paintings depicting the Hell Realm and Śakra to Anyangam Grotto in Bogae Mountain. In the Daewoongjeon Hall of Bowolsa Temple, Seongnul enshrined a Buddhist Triad along with a hanging scroll and paintings of the Three Bodhisattvas, Śakra, and the Eight Legions. Furthermore, he placed the Amitabha statue along with a hanging scroll and a painting of the Hell Realm in the White Lotus Community of Chanting Practice within Bowolsa Temple.

Wanwol Gwahong, a monk hailing from Bowolsa Temple, traced his lineage back to Hamwol Haewon, a monk associated with Anbyeon Seokwangsa Temple. Notably, both Hamwol Haewon and Hwawol Seongnul were descendants of the esteemed Great Master Hwanseong. This lineage connection sugges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yeongyang Bowolsa Temple and Anbyeon Seokwangsa Temple. Interestingly, Hwawol Seongnul's name is listed among the patron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at Seokwangsa Temple, indicating further ties between the two temples. While records regarding Wanwol Gwahong's involvement in the 1748 Buddhist ceremony at Bowolsa Temple are scarce, give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Seokwangsa and Bowolsa Temples, it is plausible to assume his participation, possibly in a patronage capacity.

Bowolsa Temple was on the brink of closur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statues of Amitabha and Bhaishajyaguru, formerly housed in the Supreme Hall, were relocated first to Hwaeamsa Temple in Goseong, Gangwon Province, and later to Baekdamsa Temple on Seor-

aksan Mountain. Recently, the statue of Buddha was rediscovered at Bongguksa Temple in Seoul.

□ Keyword

Wooden Amitabha Statue in Baekdamsa Temple, Bowlsa Temple in Pyeonggang, Unbong Daji, Hwawol Seongnul, Wanwol Gwahong

[참고문헌]

I. 원전류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정조실록(正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여지도서(輿地圖書)』
『둔와유고(遯窩遺稿)』
『번암집(樊巖集)』
『보만재집(保晩齋集)』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평강지도(平康地圖)」(『강원도지도』)

4. 국가유산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평강 보월사중수비(平康寶月寺重修碑)」
「대흥사 서산대사표충사기적비(大興寺西山大師表忠祠紀蹟碑)」

5.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abchome.dongguk.edu/>)
『운봉선사심성론(雲峯禪師心性論)』
『환성시집(喚惺詩集)』
『천경집(天鏡集)』
『서역증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대동영선(大東詠選)』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

6. 설악산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유물(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제공)

「운마산 보월사 불상신조성회향발원문(雲磨山寶月寺佛像新造成回向發願文)」

「보월사 대법당 불상신조성 복장다라니서입회향발원문(寶月寺大法堂佛像新造成腹藏陀羅尼書入回向發願文)」

「개금원문(改金願文)」

7. 기타

이능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신문관, 1918.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 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II. 논문류

김선기, 「조선후기 승역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3.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계의 심성 논쟁 - 운봉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29, 보조사상연구원, 2008.

이종수, 「조선후기 삼문수학과 선 논쟁의 전개」, 『한국불교학』 63, 한국불교학회, 2012.

최수민, 「조선후기 강원지역 편양문종의 불사와 백담사 아미타여래좌상」,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0.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1.

